

<2008년 100인 기부 릴레이 선포문>

나눔에서 돌봄으로 - 절반의 세계를 일으키는 대장정

08-4-25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2008년 「100인 기부 릴레이」 이름이 박영숙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 진행하는 <100인 기부 릴레이>에 이끔이 혹은 주자로 참여하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대개는 편리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인데, 100인의 이끔이를 모으는 일은 해마다 새롭게 해마다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준이 아직 척박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슬로건에 선뜻 뜻을 모아주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08년 여성희망캠페인의 주제는 '나눔에서 돌봄으로 - 절반의 세계를 일으키는 대장정'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겪는 아픔을 위로하고 도전을 격려하며 그들이 처한 빈곤과 폭력, 삶의 기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어루만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눔 문화는 철저히 돌봄의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화된 나눔보다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 나눔, 한번 나누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 돌봄은 이처럼 보다 더 적극적인 나눔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돌봄은 돌보는 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안전망, 지원망, 지지망 등과 같이 사회화된 연대의 체계로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냉혹한 신자유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동안 우리끼리 이끄러온 100인 기부 릴레이를 이루기 위해
성리종에는 인간적 나눔, 지독적인 돌봄 그리고 신자유주의 주체적 기부 릴레이의
필수적인 기부 릴레이를 이끄러온 캠페인이자 이끄러온 것입니다.

한국 여성계는 오랫동안 힘을 모아 호주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여성과 가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 저변에 폭넓게 확산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가속화된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양 여아들의 납치 및 폭행 사건은 여성의 기본적인 생명 보호와 인권 존중의 문제로 다시금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계층에서 우리의 돌봄이 소홀히 되고 있음*

이처럼 여성이 처한 다양한 영역과 수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돌봄의 연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08 여성희망캠페인 <100인 기부 릴레이>에는 사회 각계 인사 110명이 이끔이 주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끔이 주자들 모두 나눔의 인간화, 나눔의 지속화를 슬로건으로, 우리 세계 절반을 일으키는 대장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100인 기부 릴레이> 뿐만 아니라 일터나눔, 음식나눔, 책나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딸들을 위한 나눔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캠페인 이끔이 일터나눔 함께 하기 기부 릴레이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2008 여성희망캠페인 및 100인 기부 릴레이>의 출발을 힘차게 선포합니다.